

다이어트 관련 도서를 위시한 자기계발서 열풍

글 서주현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영미권 담당

미국의 자기계발서 시장은 ‘긍정’이나 ‘동기부여’ 같은 단어에 대한 미국 독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식성이 웨인 다이어, 앤소니 로빈스, 닥터 필, 미치 앨봄 등 유명 저자들이 쏟아내는 책들에 의해 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래서 출판 편집자들은 호주나 유럽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한 책들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출판계는 또 다시 자기계발서 열풍이 한창이다. 이 책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용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생각’은 단순히 ‘새로운 마케팅 도구’ 일지도 모르겠다.

베스트 셀러 《비밀》(The Secret)의 비밀

최근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출간되자마자 어김없이 1위 자리를 차지하는 《헤리포터 7권》을 빼고 나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들이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똥똥한 사람들을 보면, 즉시 완벽한 몸매를 가진 자신을 그려보고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비밀》(The Secret)의 고공 행진이 흥미롭다. 반스앤 노블, 볼더스, 월든북스와 아마존닷컴에서 팔린 부수를 총합하면 3월 둘째 주 현재 한 주 동안 14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이는 소설 부문 1위를 차지한 《순결한 죽음》(Innocent in Death)이 2만 7천 부 가량 팔린 것에 비해 최소 5배 이상의 판매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11월 출간된 후 저자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몇 번 출연하면서 총 375만 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고, DVD 세트는 150만 부가 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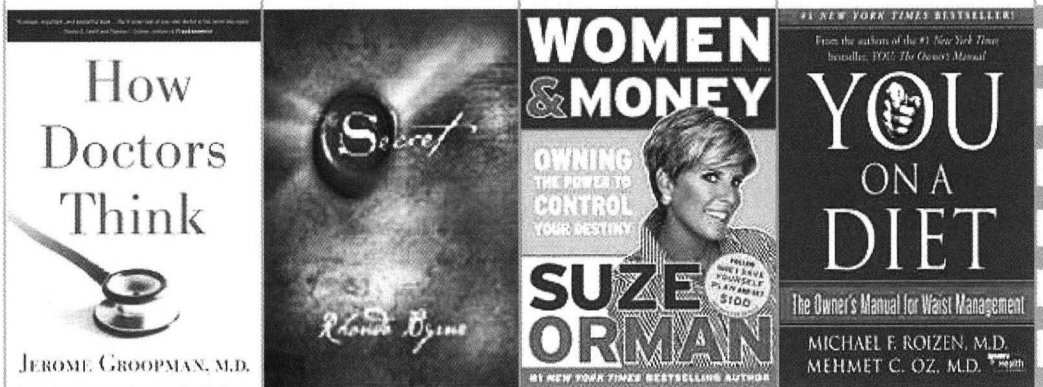
《비밀》의 저자는 이혼한 50대 주부로 사업과 개인적인 생활 모든 면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월레

스 워틀스(Wallace D. Wattles)의 1910년 작, 《부자 되기의 과학》(The Science of Getting Rich)을 찾아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생각과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결심으로 탄생한 책이 바로 《비밀》이다. 그녀는 《부자 되기의 과학》에 나오는 원칙들은 자신의 책 《비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월렛의 책을 기초로 한 세미나까지 계획 중이다. 《비밀》의 성공과 그 저자의 이러한 입김에 힘입어 오랫동안 미국 출판사들의 관심권 밖이었던 이 저작권자 없는(public domain) 책, 《부자 되기의 과학》을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할 계획이어서 향후 이 책의 독자들의 반응 또한 기대가 된다.

인기몰이 중인 자기계발서들

《비밀》을 출간 했던 비욘드워즈(Beyond Words)를 지난해에 사들인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에서는, 《비밀》이 자사 도서 중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사이먼앤슈스터가 출간한 또 한 권의 다이어트 책으로 음식의 대사와 영양에 대한 지혜를 워트 넘치는 터치로 그린 《다이어트 중인 당신》(You: On A Diet)도 《비밀》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두 신간의 성공 덕분에 사이먼앤슈스터는 2007년을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자신감이 한층 높아져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날씬한 사람처럼 당신의 뇌를 단련시키라’는 독특한 소재목으로 눈길을 끄는 《다이어트 해결책》(The Beck Diet Solution)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지속하여 체중을 감량



하고 평생 동안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4주간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질에 초점을 맞춘 다이어트 가이드 《섬유질 35 다이어트》(The Fiber35 Diet)도 무서운 속도의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고, 새로운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에 대한 《체중 식이요법》(The Volumetrics Eating Plan)처럼 2005년 출간되어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도서도 꽤 보인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저자가 다이어트에 대한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고, 제목에서처럼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바꾸라고 역설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만들기》(Creating your new lifestyle, 2007.2) 같은 책도 눈에 띈다.

다이어트 관련서 이외에도 《여자와 돈》(Women & Money)처럼 직설적인 제목으로, ‘여자도 남자들처럼 능숙하게 돈을 다룰 수 있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과 재테크의 복잡하면서 한편으로는 역기능적인 관계에 대해 그린 자기계발서 및 《더 이상의 바보 법칙은 없다》(The No Asshole Rule)같은 직장 처세에 관해 다룬 처세서, 그리고 내면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Eat, Pray, Love)처럼 소설, 자기계발서, 여행 에세이, 철학서 등 장르를 넘나드는 책들도 그 인기몰이에 한창이다.

한국의 자기계발서 시장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등을 위시한 재테크 관련서와 《배려》(청소부 밥) 《마시멜로 이야기》 등 우화형 자기계발서가 크게 인기를 끌며 자기계발이나 리더십 분야의 수요는 출판시장의 불황 속에도 점

점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YES24의 경우 2007년 주요 키워드로 ‘자기계발’을 정할 정도로 자기계발서는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 지난해 자기계발 도서의 남성 독자는 8만 3천 명에서 2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여성 독자는 5만 9천 명에서 21만 명으로 네 배 가량 증가했다. 도서 분야별 판매 점유율을 보면 2005년과 2006년 각각 7.2%, 8.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율도 63%에 달했다.

연공서열이 아닌 철저한 실력 위주의 보상이 따르는 사회로 바뀌고, 정보지식의 수명 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직장인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지식을 배워야 살아남는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자기계발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책들이 각광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학습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 사회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삶의 행복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학습에만 매달리는 것은 삶의 균형을 잃기 쉽기에 지속 가능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느낌과 빠름을 오가는 선순환 시테크와 그에 관련된 책들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한다. **이은주**

●이 글을 쓴 서주현은

자칭 ‘책’을 통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북피스트 [bookpist (book +happy+ist)].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가치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전파하는 게 꿈이다. 북코스모스 에이전시의 저작권 에이전트로 영미권 도서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영어와 일어 통번역 활동도 하고 있다. 중개한 책으로는 《리치우먼》(카르페디엠) 《돈의 원리》(우체부 프레드 2) 등이 있다.